■ 6월 수능 모의평가 분석해보니

난이도 대체로 평이…바뀐 국어엔 '당혹'

EBS 연계 70%…한국사·수학·영어 쉽게 출제

"국어 지문 길이·문항 크게 늘어 학습전략 필요"

2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 평가를 치른 광주·전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다소 낯선 출제 방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만, 전체적인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작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대로 비슷한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게 일선 교사들과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모의평가는 본 수능의 출제 방향, 난이도를 점칠 수 있는데다,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영역별 응시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험이다. 전국 대부분의 수험생 뿐 아니라 재수생들까지 응시해 객관적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수시 원서 작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험장 곳곳에서 학생들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한국사가 처음으로 필수 응시 과목으로 치러지고,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졌던 국어가 공통 시험으로 치러지는 점,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가/나형으로 나뉘고 출제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이 올 수능시험의 가장 큰 변화다.

이 때문인지 시험을 치른 학생들 대부분은 1교시 국어 영역을 접한 뒤 달라진 지문 구성과 문제 출제 방식에 낯설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담당 부장은 "A/B형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진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통시험으로 바뀐 국어 영역은 출제 유형 변화로 낯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면서 "비문학과 문학이 섞인 지문이 출제되는가 하면, 지문 길이와 문항도 크게 늘어나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문제 출제의 방향성, 특징적인 변화의 흐름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과목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는 등 전년도 수능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일선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다.

강상훈 대동고 진학담당 교사는 "수학의 경우 대부분 평이하면서도 일부 고난도 문항이 출제돼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입시전문기업인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도 상위권을 변별하는 고난도 문항으로 가형 30번, 나형 30번을 꼽았다.

한국사의 경우 모든 수험생들에게 필수 응시 과목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는 교육부 발표 그대로였다는 게 입시 현장 목소리다. 대학별 수시·정시 반영 방법 등을 종합할 경우 입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입시 현장의 관측이다

영어도 "다소 어렵다"는 반응보다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는 등 교육부의 '쉬운 영어' 기조가 유지됐다는 평가가 많다. 탐구 과목의 경우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광재 숭덕고 진로진학담당 부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수능까지 학습방향을 세우는 등 전략을 재점검하는 한편, 수시 모집 대학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집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2일 전국 2049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조대여고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달뜸	03:50
해짐	19:43	달짐	17:29

후덥지근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16/27	보 성	구름많음	13/27
목 포	구름많음	17/26	순 천	구름많음	16/28
여 수	구름많음	18/25	영 광	구름많음	15/28
나 주	구름많음	14/30	진 도	구름많음	14/26
완 도	구름많음	16/26	전 주	구름많음	16/29
구 례	구름많음	14/29	군 산	구름많음	16/26
강 진	구름많음	14/27	남 원	구름많음	15/29
해 남	구름많음	14/27	흑산도	구름많음	16/22
장 성	구름많음	13/29			

서울, 춘천, 강릉, 인천, 청주, 독도, 대전, 대구, 전주, 부산, 광주, 제주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
	먼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14	05:43
	12:27	17:58
여수	07:28	01:14
	20:03	13:31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18/23	17/30	17/30	17/30	18/30	19/29	19/29

"90년대 이전 무등산 사진 찾습니다"

공원사무소 15~30일 공모전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무등산 옛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0년 이전 무등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경관 사진, 인물 사진 등 종류에 제한 없이 공모한다. 사진 공모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다. 군부대 주둔 전 정상부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공모를 원하는 시민은 참가 신청서, 동의서를 홈페이지(http : //mudeung.knps.or.kr)에서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mudong@knps.or.kr)로 보내면 된다. 우편(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광주시 동구 동산길 29) 및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상금은 총 850만원이다. 대상 1점(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점(각 100만원), 우수상 2점(각 50만원), 장려상 5점(각 30만원), 입선 20점(각 10만원) 등 총 30점을 선정한다. 제출한 사진은 복사하고 나서 돌려준다. 수상작의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영구 귀속된다. 자세한 사항은 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061-371-11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여수 건설현장 60% 추락 위험 노출

안전시설 미설치 26곳 입건…10곳 작업중지 명령

여수지역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건설현장 44곳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집중 감독을 벌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26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재해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10곳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6곳에 모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건설현장 재해자 수는 모두 1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6명보다 27.3% 증가했고, 이 중 사망자 수는 7명(지난해 3명)에 달한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6월 한 달 동안 '2016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에 들어간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장기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학교장에 학생 행정정보 이용 권한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한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이전에는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3개월 이상 결석'이던 취학 유예 기준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으로 정비됐고 입학연기나 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권한이 부여돼 학생의 출입국 사실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취학 때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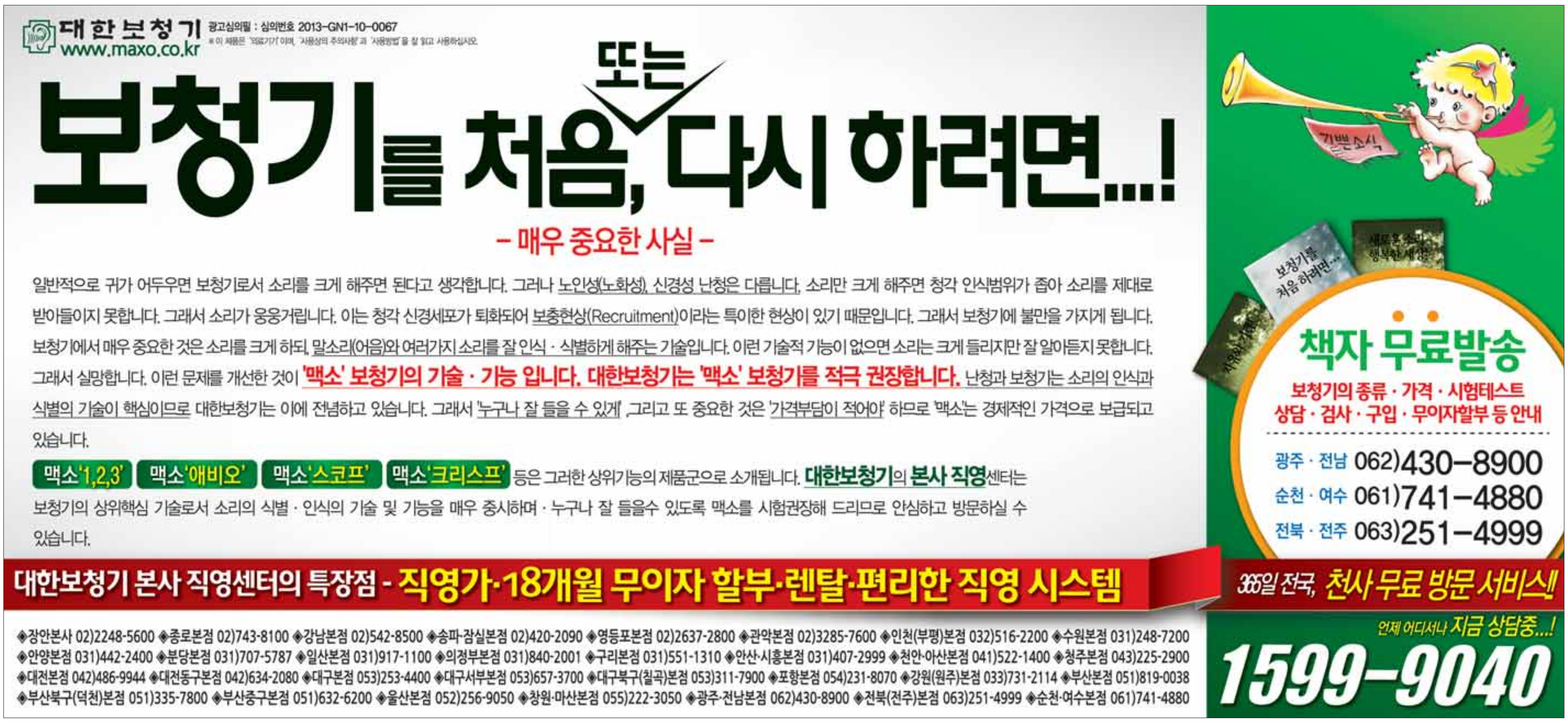
이외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했을 때 가정방문이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하도록 출석 독촉 조치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확정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지역민 76.5% "정부 미세먼지 대책 불만"

호남지역민 4명 중 3명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9%는 '정부 대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9%에 불과했다.

대부분 연령층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30대에서 불만족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82.9%), 50대(75%), 40대(73.6%), 60세 이상(5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불만족 응답이 79%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불만족 76.7% vs 만족 13.8%), 광주·전라(불만족 76.5% vs 만족 12.7%), 부산·경남·울산(불만족 68.5% vs 만족 20.3%), 대구·경북(불만족 64.9% vs 만족 22.2%)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